

재경부 2차관,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

-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체감도 제고 방안 논의
- 외국인 투자자 관점의 투자 애로요인, 제도개선 과제, 홍보 강화방안 의견 수렴
-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쏠림 발생시 정부의 단호한 대응 방침도 강조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6.4.2.(목)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자문위원단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교류 및 투자가 활발한 외국계 금융기관* 고위직으로 구성되었다. 자문위원회는 '26.1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발표 및 4.1일부터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자본시장 접근에 있어 투자 애로사항과 추가 개선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씨티은행, 프랭클린템플턴, 골드만삭스, HSBC, JP모건, 미즈호, SSBT, 모건스탠리

** MSCI: 미국 MSCI Inc.가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주요국 증시를 선진·신흥·프론티어 시장으로 분류하며 글로벌 펀드의 주요 벤치마크로 활용

*** WGBI: 영국 런던증권거래소 자회사인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발표하는 채권지수로, 미국·독일·중국·일본·한국 등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

허 차관은 그간 외환시장 선진화 노력에 따른 외환시장 변화 모습에 대해 자문위원단에 설명하면서, '24.1월부터 지금까지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위해 총 79개 해외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한 바 있으며, '24.7월 외환시장 연장운영 이후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이 2026년 1~2월 156억불, 연장시간대(15:30~익일 02:00) 거래량은 42.1억불로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등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표1: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 현황(4.2일 현재)

	싱가폴	런던	도쿄	뉴욕	홍콩	기타	합계
국내은행 해외지점	5	5	1	0	0	3	14
외국계 금융기관	15	13	8	5	5	19	65
합계	20	18	9	5	5	22	79

표2: 원달러 현물환 일평균 거래량(단위: 억불)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6.1~2월
일평균거래량	112.1	109.3	137.4	151.3	156.0
연장시간대 (15:30~ ⁺ 102:00)		18.5	25.9	42.6	42.1

이어, 허 차관은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최근 원화 변동성은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주로 기인하나,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투기적 거래 행태도 일부 관찰되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향후 과도한 쏠림 현상 발생시 정부는 언제든지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한편, 허 차관은 한국 정부가 외환·자본시장 개혁과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WGBI 편입에 따른 신규자금 유입이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도 해외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국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외환·자본시장의 제도 개선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제 체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관계 기관이 합심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투자자 관점에서 한국 시장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특히,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등 정부의 정책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WGBI 편입 또한 외환·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한 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제도적 변화를 적용하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투자자 체감도 제고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의 긍정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피드백의 선순환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허 차관은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자문위원단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들을 정부에 적극 전달해주는 가교 역할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부도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국제 금융국 국제 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하다애 (daae0517@korea.kr)
				사무관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